1300년 고찰 지킨 神將, 100년만에 제 모습 찾다

국립경주문화재硏 · 경주博,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특집 진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15년 일본인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경주의 한 절터서 특이한 석편을 수습한다. 녹유로 만들어진 신장상 석편이었고, 세 종류의 벽전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큰 눈과 콧수염, 날개가 달린 투구와 화려한 갑옷, 신발 또는 맨발로 칼 혹은 화살을 든 세 신장의 모습은 범상치 않은 문화재임을 알게 했다. 폐사된 경주 사천왕사가 다시 세상에 인식된 순간이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8년에 사천왕사 발굴을 개시했고 1922년부터 '고적발굴조사사업'의 하나로 본격적인 발굴을 진행했다.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이 개시된 100년만에 녹유신장상이 제 모습을 찾아 대중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공동으로 사천왕사 녹유신장상(四天王寺 綠釉神將像)의 3가지 유형을 3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1층에 특집 진열한다.

올해는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전시는 100년의 시간동안 각각 다른 기관에 떨어져 보관되던 7점의 파편을 처음으로 복원해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깊다.

1915년 일본인에 의해 발견된 後
조선총독부가 1918년 발굴 시작해
2006년부터 사지 정밀조사 본격화
200여 녹유상 파편 3D스캔 복원
오는 8월 5일까지 일반에 공개해

사천왕사는 679년에 문무왕(재위 661~681년)이 경주 낭산 신유림(狼山 神遊林)에 건립한 호국사찰이다. 낭산 신유림은 신라를 공격하는 당나라의 해군을 막기 위해 명랑(明朗)대사가 밀교 의식을 설행한 곳이기에 사천왕사는 신라의 중요한 성소이기도 했다. 사찰은 고려 초까지 번성했지만 고려 말부터 쇠락하여 조선 시대에 폐사됐다.



일제에 의해 수습된 하단부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상단부 파편을 합쳐서 복원된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의 모습.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이 시작된 지 100년만에 이뤄진 성과다.

일제에 의해 다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이는 조선총독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발굴로 사찰과 녹유신장상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연구 조사는 광복 이후부터 이뤄진다. 발굴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벽전 파편을 조립한 결과, 최소 두 종류의 신장(왼손에 칼을 든 신장과 활과 화살을 든 신장)을 확인했다. 이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체계적이고 정밀한 발굴을 진행하고, 200여 점의 파편을 3D 스캔해 세 종류의 신장을 복원했다.

또한, 이 벽전들이 사천왕사지 동·서 목탑 기단 벽면을 장식했음도 밝혔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은 세 종류가 한 묶음으로 탑 한 면에 두 묶음씩 동·서 목탑 기단에 16개의 묶음으로 배치됐다"며 "벽전의 총 수는 48점임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제강점기에 수습돼 국립경주박물관서 보관 중이던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의 하단부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서탑지 북편서 발굴한 상단부 6점이 같은 상이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지난해 7점의 파편을 조립하고 빠진 부분은 같은 유형의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 파편을 참고하여 이 벽전을 복원했다"면서 "이는 정밀한 발굴과 복원 과정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것 중 하나도 발굴 시작 100년만에 최초로 제 모습을 찾은 '왼손에 칼을 든 녹유신장상'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사천왕사의 건립과 100년에 걸친 녹유신장상의 발굴 조사 약사(略史),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정밀한 발굴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에 나온 녹유신장벽전 뿐 아니라 월지관의 '월지 출토 금동판불상'(보물 제1475호)과 신라미술관의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366호) 사리외함을 함께 관람하면 신라인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설명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신라미술관 1층 불교미술 제1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가야 불교, 해양 루트로 전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등 10일 춘계 국제학술대회

파사석탑, 인도와 교류사 단초 해양 무역루트 전개 등도 조명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가야불교문화진흥원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는 3월 10일 가야대 대강당서 '해양문화교류와 불교 전파'를 주제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해양루트를 통한 가야 불교 전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가야불교문화진흥원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는 3월 10일 가야대 대강당서 '해양문화교류와 불교 전파'를 주제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왕후의 인도 도래와 해양 루트를 통한 불교 전래 가능성들을 확인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거룡 선문대 교수는 '파사석탑 고찰- 가락국과 아유타국의 해양문명교류 가능성' 논문을 통해 김해 허왕후릉 비각의 파사석탑을 만든 파사석이 아유타국 배의 평형석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파사석탑을 만든 돌은 본래 석탑의 재료로 사용되기는 어렵고, 세밀한 조각을 하기에 어려운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파사석탑의 돌은 본래 석탑의 재료로 가락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한 평형석"이라며 "돌과 탑이 만들어진 시기는 다르다. 이 점은 〈가락국기〉에는 없던 파사석탑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사실과도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사석탑은 고대 가락국과 인도의 문명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라면서 "파사석탑의 돌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와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해양루트를 통해 문명 간 교류에 주목했다.

석길암 교수는 '동아시아 해양문화 전파경로와 불교의 한국 전래'에서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해양 전래 문화인 지석묘와 벼농사에 대해 주목했다. 석 교수는 "벼농사를 중국에서 전파된 문화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중국 형성 전에 양자강 유역으로부터 한반도로 해로를 통해 직접 전파됐다"면서 "아육왕탑 전파 경로는 많은 확인이 있어야 하지만, 스리랑카-부남-양자강 하구-산동반도-요동이라고 하는 전형적 해양루트를 따른 전파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황순일 교수는 '해양 실크로드와 말레이 반도'를 통해 "가야 성립 전부터 말레이 반도 중부 카오삼께오는 지중해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였고, 수많은 불교 상인들이 활동하며 불교를 전파했다"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영역이 확장돼 직간접적으로 한반도에까지 이르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인도문화와 붓다' 주제 인문학 강좌

(사)경기불교문화원 3~5월… 이수자 수료증 수여

(사)경기불교문화원은 3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문화원 내 교육실에서 '인도문화와 석가모니 붓다'를 주제로 지역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한국외국어대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간디아수람)의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와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총 10강으로 조준호 고려대 연구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조 교수는 인도 문명의 기원부터 우파니샤드, 자이나교 등 인도 종교 문화, 불교의 탄생, 붓다의 가르침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료한 지역주민에게는 '한국외대 인문학교양대학'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 이상주의자 면면들을 만나다

불교평론 제73호 특집

불교계 대표 학술 계간지인 〈불교평론〉이 2018년 봄호(통권 제73호)를 발간했다.

특집으로는 '현대불교의 이상주의자들'을 다뤘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 교수, 김호성 동국대 교수 등이 필진으로 참여한 특집에서는 현대 선지식인 운허·소천·청담·지효·성철·광덕·숭산·법정 스님에 대한 인물사 면면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열린 논단을 통해 소개됐던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대웅전을 폐지하고 법당을 세우다', 신희정 교사의 '붓다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을 치세요!
인터넷동영상강좌 평생교육원 대통인.com
온라인 인터넷 동영상강의보기 사이트
수강상담 전화
1661-6551
(24시간 접수중)
인터넷 동영상 수강 과목

명리학	구성학	기문둔갑
매화역수	천문지리풍수	수상
육효	육임	주역
타로	물상명리	풍수지리
성명학	수맥	팔체질
꿈해몽	생활풍수	사자소학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해서 좋다.
• 역학의 모든 과목을 실력있는 강사에게 배운다.
• 누구나 저비용으로 반복하며 전 과목을 공부한다.
• 누구나 공부하면 빠른시일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N D YouTube G 검색창에
대통인학술원을 치세요!
오프라인강좌수강! 천국공개강의 알리미 사이트 대통인학술원.com
오프라인 인터넷 공개강의보기 사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상담 전화
1833-9551
(24시간 접수 중)
현재 오프라인 수강생모집 과목

과 목	강사명	개강일	수강시간	강의시간	월수강료	비 고
구 성 학	박창원	3월 20일(화)	14-17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자연물상 사주명리	지정도	3월 21일(수)	13-15시 16-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주 역 점 (명리보다 더 잘 맞는 주역점배우기)	장호철	3월 23일(금)	14-16시 19-21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3월 25일(일)	12-14시			
수암명리 (한눈에 보는 사주풀이)	연태희	3월 26일(월)	15-18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유내쌤타로	차두성	3월 28일(수)	10-12시	3개월	15만원	교재제공
영가견법	백암박서한	3월 29일(목)	16-18시	3개월	30만원	교재제공
육효실전		3월 29일(목)	19-21시	3개월	20만원	교재제공

•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대통인학술원을 치시고 들어가셔서 공개강의 공지를 자세히 보세요.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2번지 흥도빌딩 3층 3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30m) (자가용 → 영등포구 구의회옆 당산공영주차장 이용)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2mm
희담석 108염주세트 4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하고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